



제 403 호 2015년 9월 9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브라보 안산

Ansan City Newspaper
Bravo Ansan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 blog.naver.com/cityansan](http://blog.naver.com/cityansan)

[t twitter.com/ansancityhall](https://twitter.com/ansancityhall)

[f facebook.com/ansancity3](https://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02면 특집

‘상상 그리고 만남’
제29회 별망성예술제 개최

05면 생활·경제

일자리가 복지다
안산시, ‘일자리 발굴 특공대’ 운영해

06면 문화·예술

대부도의 아름다운 석양이
우리공예 & JAZZ 선율과 만나다

10면 학교·도서관

비즈니스 교육의 메카
안산국제비즈니스 고등학교



상상 그리고 만남



1987-2015

제29회

별망성 예술제

2015. 9.11(금)~9.1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9.11(금) 첫째날 - 별망성과의 만남

뮤지컬 불휘 별망의 노래

9.12(토) 둘째날 - 우리가락과 힙합의 만남

국악한마당
초청공연 세발까마귀
청소년 뮤직페어 예선

9.13(일) 셋째날 - 몸짓과 소리의 만남

초청공연 크라이넛
청소년 뮤직페어 본선

주요행사 지부별 전시 및 공연, 각종대회 등 3일간 진행
안데스 상시 공연, 체험부스 및 특산물 판매

주최 : (사)안산예총

주관 : 안산예총 9개협회, 안산예총문화사업단

후원 :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의회, 안산시의회
안산문화재단, 농협안산시지부

문의 : Tel. 031-485-3844 Fax. 031-482-5061
www.ansanart.co.kr

9월 12일 - 백일장, 미술실기대회, 서예문인화·회화대회, 무용경연대회, 뮤직페스티벌

9월 13일 - 다문화 국제의상 전국사진촬영대회, 댄스경연대회, 힐링가요콘서트, 무용축제 티움

9월3일~6일-청소년연극제 / 9월8일~14일-미술정기회원전 / 9월10일~14일-사진정기회원전 / 9월11일~13일-문인시화전





도전하는 젊음이 아름답다 페트병 뗏목 타고 시화호 횡단하기



페트병 뗏목을 타고 안산수변공원에서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까지 20km를 횡단한 인치광 군(왼쪽)과 유솔군.

누군가가 무심코 버린 생수병이 시화호에 동동 떠 있는 것을 보고 “저거다!”라고 무릎을 쳤다. 아파트와 인접한 수변공원을 자전거 거로, 또는 달리기로 늘 오가며 운동을 하던 인치광 군(충북대 도시공학과 4학년)은 어느 날 버려진 페트병을 보고 ‘페트병으로 배를 만들어 시화호를 횡단하면 어떨까?’라는 다소 엉뚱한 생각을 했다. 시작은 혼자였지만 초중고를 함께 다니고 군대도 동반 입대한 절친 유솔 군(한양대 건축학과 4학년)에게 제의를 해 함께하기로 했다.

이후 시화호 횡단 가능 여부에 대해 안산시에 문의를 한 후 시의 홍보와 도움으로 페트병 230여 개를 모아 뗏목을 만들고, 시화호에 직접 띄워 시험운항을 하며 맹훈련을 했다. 뗏목이름은 두 청년의 이름에서 한자씩 따 ‘치유호’라 이름 지었다.

지난 8월 20일 오전 9시 40분, ‘치유호’가 시화호를 향해 뗏을 올렸다.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날씨를 통해 청년들의 도전이 얼마나 힘들어지 예상할 수 있었다. 많은 취재진이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해주었고 이들의 안전 운항을 위해 시청 직원, 한국수자원공사, 해병전우회 인명구조대가 ‘치유호’의 뒤를 따랐다.

예상보다 훨씬 긴 8시간 동안 20km를 노를 저어 대부도 방아머리 구 선착장에 도착한 ‘치유호’. 이들이 본 시화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인치광 군은 “시화호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지 않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어

요. 연습하는 기간 동안 돌고래도 보고 물고기가 뗏목으로 튀어 오르기도 했어요. 멀리 대부도의 모습도 아름답게 보이고, 조력발전소의 모습도 장관이었죠. 철새들이 무리지어 날아가는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은 날씨가 흐려 제대로 보지 못해 조금 아쉬웠습니다.”라고 말했다.

유솔 군은 “물때에 맞춰 2~3시간씩 연습할 때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그러나 안산에 살면서도 시화호에 대해 잘 몰랐고, 시화호가 막연히 고인 물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곳에 물고기가 살고, 그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새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니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들의 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화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 뿌듯해요.”라고 말했다.

페트병 뗏목 횡단 후 많은 이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중 ‘페트병으로 뗏목을 만들어 시화호를 횡단하다니! 낭만적이다!’라는 댓글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인치광 군은 “제가 무엇을 하든 항상 묵묵히 격려해주는 부모님과 시작부터 끝까지 지원해주신 안산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도전하는 젊음이 아름답다’는 말을 증명한 두 청년들의 열정과 땀방울이 싱그럽다.

김은미 명예기자 (imai34@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자전거 타고 즐기는 시화호의 풍경

자연과 마주하는 해솔길 7코스

코스별로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해솔길 코스 중 가장 긴 7코스는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코스 중 하나다.

해솔길 7코스의 시작점은 대부도 초입에 위치한 대부도 관광안내소에서 시작해 대부바다항기테마파크와 대송단지 갈대숲, 탄도방수제를 지나 탄도항까지 총 16.6km를 달릴 수도 있고, 탄도항에서 출발해서 대부관광안내소로 돌아오는 코스로 잡아도 된다. 현재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 자전거를 타거나 걸으면서 끝없이 펼쳐진 시화호의 모습과 갈대와 갯벌이 조화를 이룬 대송단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포장된 도로라 걷는 것보다 차량의 방해받지 않으며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을 추천한다.

차량의 통행이 없다보니 도로변에서 자라던 이름 모를 식물의 넝쿨이 도로까지 길게 뻗어나와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정지된 듯한 풍경 때문인지 새들의 날갯짓과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도 한결 여유롭다. 특히 이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외에 일출을 찍으려는 사람들과 낚시하는 사람들, 갯벌에서 통통마디(함초)를 뜯는 사람들 등 자연이 주는 선물을 욕심 없이 누리기 위한 이들의 발걸음이 잦은



대부해솔길 7코스 (16.6km) 누에섬입구 ▶ 탄도방조제 ▶ 대부바다항기테마파크 ▶ 대부도관광안내소

곳이다.

본인의 자전거를 가져올 수 없다면 대부도관광안내소 앞에 마련된 안산시공공자전거(<http://www.pedalro.kr>)를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대여 가능한 자전거 현황은 안산시공공자전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페달로의 이용은 년 회원, 월 회원, 1일 회원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휴대폰,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대부도관광안내소에서 출발해 왼쪽으로는 시화호, 오른쪽으로는 대송단지를 바라보며 달리다보면 건너편으로 형도와 어석이 보인다. 터미섬을 지나 탄도에 도착하면 거대한 크기의 풍력발전기를 볼 수 있고, 썰물로 물이 빠져나갔다면 누에섬 등대 전망대까지 속살을 드러낸 바닷길을 걸어서 갈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촌민속박물관에 들러 갯벌 생태계와 어촌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다.

일몰이 아름다운 탄도는 예전에 무인도일 때 이 섬의 울창한 수목을 베어 숲을 구웠다해 탄도라 불리며 해솔길 6코스 시작점이기도 하다.

풍력발전기와 만조 혹은 간조시의 바다가 빚어낸 해질녘의 탄도항 풍경은 여행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맑은 날의 노을과 흐린 날의 노을이 다 제각각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자전거로 힘차게 달리는 해솔길은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해준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안산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개소 신규 지정

안산시는 지난 달 28일 단원구 고잔2동 일원의 주공5단지1구역 등 5개소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금번 지정된 정비구역은 그간 주차장 협소, 설비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주거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 의 쾌적성 등이 열악하므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된 지역이었으며, 인근에서 추진중인 중앙주공1단지 및 중앙주공2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지난 2013년 4월 25일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한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해 D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6월부터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침내 고잔2동 일원의 정비구역 5개소(주공5단지1구역, 주공5단지2구역, 주공6단지, 고잔연립8구역, 고잔연립9구역)를 지정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의 절차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에서 배부하는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로부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 경우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착공을 준비중인 중앙주공1단지 및 중앙주공2단지와 함께 재건축 정비사업이 완료될 경우 고잔2동 일대의 주거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 의 쾌적성 확보와 도시경관의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들의 숙원인 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문의: 안산시 주택과 (☎ 031-481-2386)

안산시 단원구청 및 보건소 건립 기공식 개최

지하 1층~지상 6층(연면적 23,103㎡) 규모... 2017년 준공 예정

안산시는 8월 20일, '단원구청 및 보건소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그간 단원구청사는 2002년 11월에 개청하여 지금까지 14년째 임시사무실을 청사로 사용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었으며, 단원보건소도 의료공간이 부족해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사항들이 있었다.

시에서는 단원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임시사무실로 쓰고 있는 단원구청사와 의료공간이 부족한 단원

보건소 건물을 대체할 새로운 단원구청사 및 보건소 건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기공식을 가진 단원구청과 보건소는 단원구 화랑로 260(조지동 666번지)에 대지면적 10,918㎡에 연면적 23,103㎡,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 시설로는 단원구청사, 보건소, 어린이집 등이 있으며, 올해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약 25개월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문의: 안산시 도시개발과 (☎ 031-481-2484)



안산시 푸드트럭 청년 창업 1호점 개업

경기도 최초, 취업애로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위한 '푸드트럭' 본격 시행

안산시는 8월 28일 안산시립호수테니스장(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9)에서 취업애로 청년·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푸드트럭 청년 창업1호점 개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안산시립호수테니스장 푸드트럭 운영은 경기도 최초의 취업애로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이자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1호 사례다.

개업식에는 7월에 안산도시공사의 공모를 거쳐 선정



된 안산시립호수테니스장 입점자와 최원호 안산시 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트럭 로고 랩핑, 입점 푸드트럭 음식판매 시연 등의 세부행사가 진행됐다.

최원호 안산시 부시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푸드트럭 영업가능지역을 제2, 제3의 푸드트럭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안산시 기획법무과 (☎ 031-481-2059)

일자리가 복지다

안산시, '일자리 발굴 특공대' 운영해

25개 동 주민센터, 희망 일 드림 취업상담 창구를 개설 동네 곳곳에 숨어있는 일자리 발굴·구직자 취업상담

일자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안산시가 지난 6월부터 희망 일 드림 취업 상담 창구 '일자리 발굴 특공대'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자리 발굴 특공대'는 지난 6월 1일부터 25개 동 주민센터에 희망 일 드림 취업상담 창구를 개설해 동네 곳곳에 숨어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구직자에게 취업상담 등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25개 동 주민센터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선부3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선부3동은 소규모 영세 부품 조립·제조업체와 서비스 업종이 밀집되어 있다.

주영미 사회복지사는 "소규모 업체를 일일이 찾아내서 방문하고 상담 창구에 대해 알리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한두 번 방문하다보면 얼굴을 익히게 되고 한 업체에서 구인에 성공

하면 다른 업체에도 소문이 나 절로 홍보효과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흔히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업체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을 한다.

구인업체와 구직자들에게 오작교가 되어주고 있는 '일자리 발굴 특공대'가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에 '일자리 발굴 특공대'를 찾는 대상은 대부분 여성과 노인층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현재는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의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어머니와 함께 구직 상담을 온 한 사례자는 일자리 발굴 특공대에서 발굴한 업체에 청년인턴으로 취업을 한 후 현재는 제빵사로 일

하고 있다.

홀로 생활하던 65세 여성을 지역아동센터 주방장으로 소개를 해주었다. 그러나 센터장과 구직자 사이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어 자칫하면 구직자가 일자리를 잃을 지경이었지만 사회복지사의 중재로 현재는 모두 만족하며 일을 하고 있다.

안산시 일자리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시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하는 '안산919 취업광장', 첫째 목요일에 진행되는 '목요희망잡고', 동행면접, 상설면접, 청년·계층별 취업교육을 통해 청년부터 노년까지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빈틈없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매월 19일 열리는 안산919취업광장에서는 구직자가 면접에 필요한 사진부터 이력서 작성까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당일 면접을 통해 취업까지 연결가능하다. 특히,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등록 업체 중 5개 업체는 필히 청년구직자를 선정하고 있다. '목요희망잡고'에서는 여성, 시니어, 청년 등 계층별로 특화해 취업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 발굴 특공대를 통해 선부동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김옥희(65세)씨

업체에서 구인을 원할 경우 등록된 구직자를 선별해 동행면접을 하거나, 업체에서 직접 시청으로 와 면접을 보는 상설면접은 업체와 구직자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고 있다.

또한, 시청민원실에서는 평일에 시간이 없는 시민을 위해 연중무휴로 취업상담이 가능한 '취업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 031-481-2277)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이제 이사를 때 가져온 쓰레기 봉투 버리지 마세요!

'종량제봉투 인증제' 9월 21일부터 시행



안산시는 새로 전입하는 가구가 이 사 전에 살았던 타 지역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인증제'를 실시한다.

종량제봉투 인증제도란 전입신고 할 때 각 동 주민센터나 청소행정과에서 '안산시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배부 받아 이사할 때 가져 온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에 부착 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에는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수거를 하지 않거나 무단투

기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입세대에서 가지고 있던 종량제봉투 사용에 불편함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안산시에서 실시하는 종량제봉투 인증제는 홍보기간을 거쳐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문의 : 안산시 청소행정과 (☎ 031-481-2258)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과일·채소



○ 사과의 효능

- 식욕 상승 효과 : 사과는 위액 분비를 촉진해 식욕을 돋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다이어트 효과 :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를 해결하고 체내 축적된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 장 건강 효과 : 사과에 함유된 펙틴성분은 장내 유익균이 번식하는 것을 도와주어 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 맛있는 사과 고르는 방법

- 당도가 높은 사과는 당분이 밖으로 나오면서 거칠어지기 때문에 표면이 거친 사과가 좋습니다.
- ※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윤이 나는 사과는 오래된 것입니다.
- 꼭지의 반대부분이 노란색인 것이 좋은 사과입니다.

○ 사과의 신기한 비밀

- 사과와 감자를 같이 보관하면 사과가 감자의 발아를 방해해 감자를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사과를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사과 속의 에틸렌 가스가 다른 과일을 빨리 익어버리게 하므로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과를 더 유익하게 먹는 법

- 사과를 소금물이나 설탕물에 담가두면 갈변을 막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 사과와 인삼을 같이 먹으면 세포활력 작용이 강해져 상처가 빨리 아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사과와 양배추를 같이 갈아 마시면 정화작용을 해 피부가 깨끗해지고 맑아집니다.

대부도의 아름다운 석양이 유리공예 & JAZZ 선율과 만나다



오는 9월 19일 오후 7시에 대부도 유리섬미술관에서 국내 정상의 재즈보컬리스트 윤희정과 함께하는 'Glass & Jazz' 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서해안 해양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대부도를 국내외 재즈 음악 애호가와 관광객들에게 관광코스도 알리고자 안산시와 유리섬미술관이 민·관 합동으로 개최하는 음악회이다.

음악회는 오후 6시 현대유리조형작가들이 야외무대에서 유리공예작품을 직접 만드는 시연 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7시부터 국내 최고 재즈보컬리스트 윤희정과 프렌즈들이 대부도 석양과 어우러진 멋진 재즈 음악 공연을 2시간 동안 펼칠 계획이다. 이 날 공연에는 특별 게스트로

가수 김수연, 개그우먼 김미화, 공간디자이너 윤석민이 출연하여 즉석에서 재즈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자못 기대가 되는 공연이다.

9시부터는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과 이경호의 미디어 영상 작품을 아름다운 유리섬미술관 건물 외벽으로 쏘아 건축물과 미디어 영상 그리고 대부도의 밤하늘이 하나의 작품이 되는 독특한 형태의 미디어 파사드가 진행된다. 이번 음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유리섬미술관은 당일 오후 6시부터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대부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빛어낸 보기 드문 명품 음악회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대부도를 방문하여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 ☎ 031-481-2068
대부도 유리섬미술관 ☎ 032-885-6262



1부(18:00~19:00)
유리공예 시연 **WOT BLOWING GLASS**
현대 유리조형작가들의 유리공예 시연
유리조형작가 김동선 / 정정훈



2부(19:00~21:00) 재즈 공연
YUN HEE JEONG & FRIENDS' JAZZ FESTIVAL

OPENING	CEOJ BAND	
It Don't Mean a Thing	윤희정	싱어송라이터 김수연
Over the Rainbow		
Wave / You'd Be So Nice Come Home To A Shi / Senoya (악단소개)		
Bei Mir Biet Du Schon	윤희정 & 김수연	
It's Only a papermoon	김수연	
Special Song	윤희정	
Liber Tango		
Angel eyes	윤석민	
Special Song	윤희정	
My Heart Boelongs To Daddy	개그우먼 김미화	
Special Song	개그우먼 김미화	개그우먼 김미화
I'm a Fool to Want You	윤희정	
Tennessee Waltz	윤희정(AI)	
I Live the Lord		

CEOJ BAND

Guitar : Byoung-Jo Bang | 방병조
Piano : Shin-Hye | 심신혜
Drum : Young-Soo Yu | 유영수
Base : Dong-Gun Kim | 김동건
Saxophone & Flute : Tae-Lyong Hwang | 황태룡
Keyboard : Ji-Won Kim | 김지원
Percussion : Eun-Hye Seo | 서은혜
Vocal Chorus : 홍주혜, 박지혜, 김명훈

THANKS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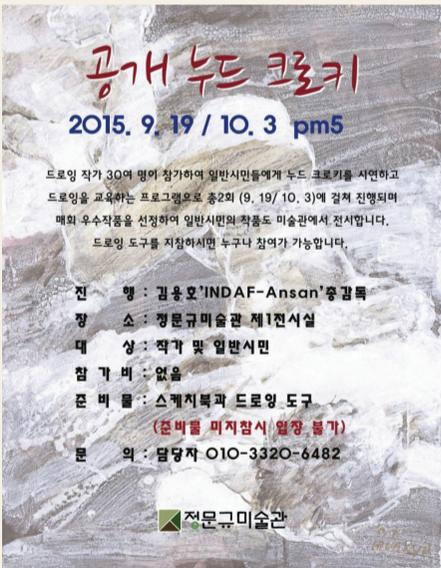
Sound : PRIX MEDIA(OP. Woo-Jin Kim) | 프릭스미디어 (OP. 김우진)
Light : PRIX MEDIA(OP. Woo-Jin Kim) | 프릭스미디어 (OP. 김우진)
Musical Instrument : HAPPY NEW YEAR(Hyun-Joong Kim) | 해피뉴이어(김현중)
Make up : Korea Pro Makeup Job Interchange Association(Mee-Ryu Ahn) | 연미러
Photographer : AEY Studio | 안영주

3부(21:00~22:00)
미디어 영상 **MEDIA INGALE**
미술관 건물 외관위로 펼쳐지는 미디어 영상작품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미디어아티스트 **이경호**

정문규미술관 공개 누드크로키 강좌



공개 누드 크로키
2015. 9. 19 / 10. 3 pm5

드로잉 작가 30여 명이 참가하여 일반시민들에게 누드 크로키를 시연하고 드로잉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총2회(9. 19 / 10. 3)에 걸쳐 진행되며 매회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일반시민의 작품도 미술관에서 전시합니다. 드로잉 도구를 지원하시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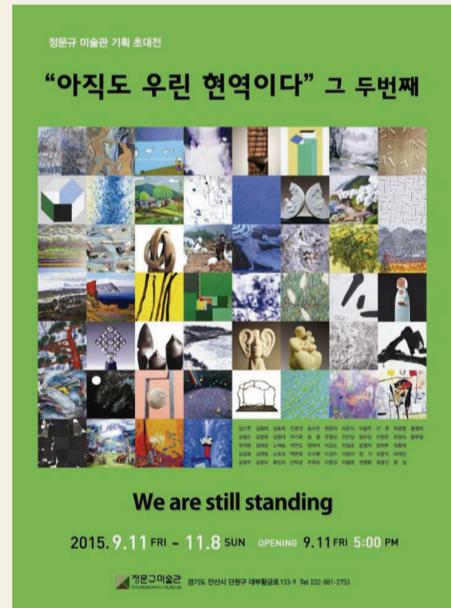
진행 : 김용호 'INDAF-Ansan' 중감독
장소 : 정문규미술관 제1전시실
대상 : 작가 및 일반시민
참가비 : 없음
준비물 : 스케치북과 드로잉 도구
(준비물 미지참시 입장 불가)
문의 : 담당자 010-3320-6482

정문규미술관

정문규미술관은 음악과 함께하는 혼성 공개 누드 크로키강좌를 연다. 우리나라 누드 드로잉 장르의 주축이 되는 중진작가 30여 명과 일반관객이 함께하는 이번 공개강좌는 크로키북과 도구를 지원한 관객은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며 공개강좌 후에 관객들의 작품을 선정 아르페지오 카페 로비에 일정기간 전시한다. 입장은 무료다.

- 일 시 : 2015. 9. 19(토) 10. 3(토) pm5시~
- 장 소 : 정문규 미술관 제1전시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3-9)
- 준비물 : 스케치북과 드로잉 도구(연필, 목탄, 차콜 등)
- 진 행 : 김용호 'INDAF-Ansan'(국제누드드로잉아트페어) 전시총감독
서울아트모델컴퍼니 대표 권은진
- 문 의 : 담당자 010-3320-6482

정문규미술관 기획 초대전 '아직도 우린 현역이다' 그 두번째



정문규 미술관 기획 초대전
"아직도 우린 현역이다" 그 두번째

We are still standing

2015. 9. 11 FRI - 11. 8 SUN OPENING 9. 11 FRI 5:00 PM

정문규미술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3-9 TEL 031-481-2753

정문규미술관은 한국미술 1, 2세대대 '아직도 우린 현역이다'를 열고 한국화단의 70세 이상 원로 중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미술관이 이미 한차례 진행한 바 있는 첫 번째 전시에 참여하지 못했던 현역 원로 작가 52명을 초대해 두 번째 전시를 마련한다.

- 전시장소 : 정문규미술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3-9 (선감동 680-9)
- 전시기간 : 2015년 9월 11일(금) ~ 11월 8일(일)
- 전시오픈 : 2015년 9월 11일(금) pm5시
- 관람료 : 4,000원 (학생 3,000원/단체 20인 이상 1,000원 할인)
- 문의 : 정문규미술관 032-881-2753 / 실장 010-5522-3455

안산산업역사박물관에 무얼 담을까?

‘소셜픽션컨퍼런스’...시민이 박물관을 상상하다



팀별로 주제에 따라 의견을 모으고 있다.



꼬마들 팀이 상상하는 박물관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8월 29일, 안산예술의전당 제1전시실에서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을 사용자 중심 공간으로 건립하기 위한 소통의 장인 ‘소셜 픽션컨퍼런스’가 열렸다.

근로자, 청소년, 교사, 시민단체 등 80여 명의 시민들이 박물관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산업역사박물관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

안산산업단지의 역사와 박물관 건립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1부는 새로운 의미의 현대유산과 변화하는 박물관에 대해 이해를 돕는 강연이 진행됐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을 담당하는 기

량 과장은 “지식과 해석의 유일한 권위자로 자처하던 박물관은 앞으로 관람자의 동기와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관람자의 관점을 박물관의 내적 기능에 통합하는 쌍방향적 소통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며 박물관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1916년에 상표 등록해 판매한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 ‘박가분(朴家粉)’, 최초의 라디오 ‘금성A-501’, 국민차 시대를 열었던 ‘포니’를 보여주며 전통시대의 자료가 아니어도 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동대문 리서치 프로젝트에 참여한 혁신활동가 박찬국 디렉터는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하지 않은 DDP(동대문디자인 플라자)를 패러디해 동대문신발도매상가 B동 옥상에 만든 ‘동대문 옥상낙원(DRP: Dongdaemun Rooftop Paradise)’을 통해 ‘도시의 빈틈’과도 같은 옥상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2부에서는 유물, 공간, 건물, 전시, 산업인, 꼬마들, 청소년, 시니어, 동네사람들, 일어나는 일 등 주제별로 모인 5~6명이 한 팀이 되어 ‘우리가 상상하는 산업역사박물관’에 대해 아이디어를 냈다.

참가자들은 박물관에 문화공연·체력단

련 시설과 체험공간, 협궤열차길을 이용한 무빙워크, 자동정수 시설이 있는 음악분수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꼬마들 팀은 ‘로봇 태권브이’ 모양의 건축물로 아이들이 기구를 타고 입장할 수 있는 놀이터 같은 박물관을 상상했다.

시니어 팀은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가 안산의 히스토리가 되어 자료를 열람해볼 수 있는 방식의 전시관으로 시니어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해 산업인으로서, 가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가족의 이해와 소통의 장이 되는 박물관을 그렸다.

유물 팀은 산업의 역사가 담긴 물건들과 함께 그 시절 추억이 있는 사진과 이야기 보따리를 음성으로 담아 들려주고, 전시마다 관람객들이 포스트잇이나 SNS 등을 통해 리플을 달아주면 노동자의 자부심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살아 움직이는 노동의 현장을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전시가 병행되면 그 노동이 사회에서 어떤 통로를 겪고 다시 가정에 환원되는지 노동의 생태계를 이해하게 되고, 노동의 가치가 높아지면 노동자의 삶도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의견으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산업정책과 김동완 과장은 “주말 오후인 데도 컨퍼런스에 참여해 장시간에 걸쳐 의견을 내준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를 표한다.”며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을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의견을 잘 집약해서 박물관에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산업정책과 ☎ 031-481-2851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인간의 소중한 일상, 사소하고 작은 풍경들을 휴대폰 앵글에 담다!

안산문화예술진흥금으로 우리동네 365일 사진전 열어

지역주민을 위한 오픈된 문화 공간 믿음갤러리서 오는 10월 10일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에 가지는 애정이 느껴진다. 사진을 설명하는 눈빛과 목소리에 즐거움이 가득하다. 산책을 즐기며 보여주는 일상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아 올해로 3회째 전시를 열고 있는 이영미 작가를 믿음갤러리(고잔동 716번지 메티피아빌딩 5층)에서 만났다.

이영미 작가는 집 근처와 안산 이곳저곳을 산책하며 발견한 일상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아왔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즐겁다고 한다. 잘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소한 일이라 여기며 겸손한 모습이다.

대한 피사체보다는 아주 작고 지나치기 쉬운 대상들에 렌즈를 맞추는 일이 많다. 작은 것들의 우주와 우리 인간과의 공존을 마치 한 편의 시(詩)처럼 사진에 담아내고,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의 활자를 곁들인다.

바쁘게 살아가다 문득 지나치기 쉬운 소소한 것들의 아름다움과 휴식, 비, 바람, 그늘, 하늘, 지친 일상에 작가 이영미의 사진에세이는 잠시나마 충분한 휴식과 사색의 즐거움, 평화로움을 우리들에게 선사해 준다.

이영미 작가는 “제 핸드폰이 제일 좋아요. 사진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핸드폰에 소소한 일상을 담아 여러분

과 같이 느끼고 싶었지요. 어렵지 않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예술을 하고 싶었어요.”라며 “사진 소재는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지요. 이 작은 일 하나로도 열리는 세계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1회째는 ‘엄마의 보따리’를 주제로 전시를 했다. 시집 올 때 어머니가 가져온 천이나 지갑, 모시옷 등을 전시하며, 여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드는 자리가 되었다. 2회째는 ‘해찰’이란 제목으로 ‘딴 짓’을 통해 조금의 여유와 재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었다.

전시가 열리고 있는 믿음갤러리는 믿음 치과 안에 마련된 문화공간이다. 문화공간을 사회속에 녹여내자는 취지에 2004년부터 오픈된 문화공간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10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화 공간으로 일요일은 문을 열지 않는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u70@hanmail.net>



'상록수공원'에서 최용신 이야기 속을 거닐다

상록수공원은 심훈의 장편 소설「상록수」의 여주인공 채영신의 실제 모델인 최용신(崔容信, 1909~1935)을 기리기 위해 1994년 그가 활동했던 샘골마을(현 상록구 본오동 879-4, 샘골서길 64)에 조성되었다.

주차장에서 최용신 기념관으로 가는 길에 보면 비석이 세워져 있고 샘골(泉谷)이라고 적혀 있다. 1931년 최용신이 와서 활동하던 동네가 샘골이다. 기념관 옆에는 최용신이 아학을 강습했던 천곡교회(현 샘골교회)가 있다. 1907년 7월에 세운 교회이다.

기념관 앞에 향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는 1933년 최용신이 건립한 샘골 강습소의 주춧돌을 모아 놓았다. 사진은 샘골 강습소 낙성식 기념사진이다. 향나무는 1934년에 최용신이 심은 것이라 한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니 어린이 체험교실이 아기가 자기하다. 밖으로 나와 최용신 묘 방향으로 가다보니 심훈의 문학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아침저녁 저의 손으로 치는 그 종소리는 저의 가슴뿐 아니라 이곳 주민들의 어두운 귀와 혼몽이 든 잠을 깨워주고 이 청석골의 산천초목까지 울리겠지요'라는 「상록수」의 글귀가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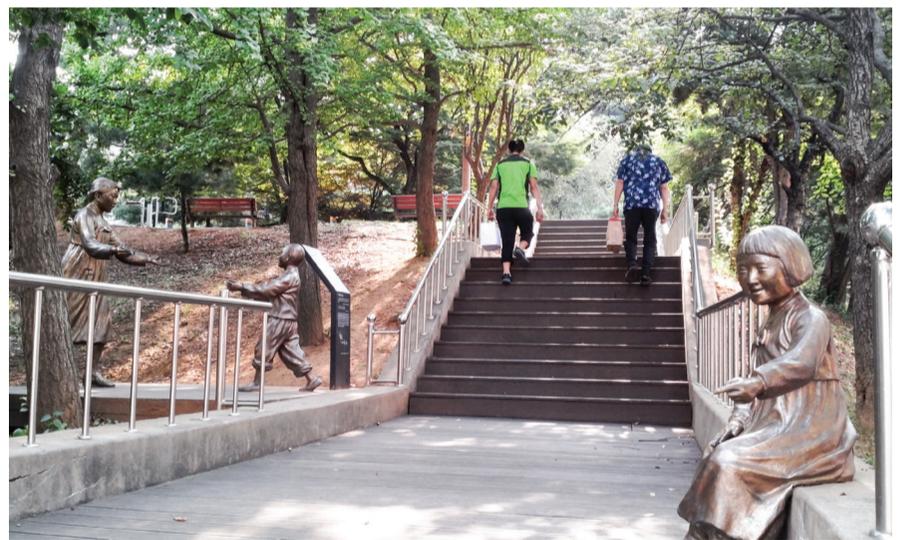
글귀를 천천히 새겨 읽는 내 등 뒤에서 최용신의 목소리인듯 포랑포랑한 목소리

가 들려온다. "그 당시 이 언덕빼기 아래로는 모두 바다였어요. 고향이 함경남도 원산이었던가. 요 앞에 가면 최용신이 심었다던 오래된 나무도 있어요."라며 조경숙 어르신(86세)이 옆에 앉은 어르신께 말을 건네고 있었다. "오후가 되면 아기엄마들도 산책을 나와요. 공원의 나무그늘에 앉아 사는 얘기도 하고 친구삼아 이야기를 나누곤 하죠."라며 분홍 모시한복을 곱게 입은 김영자 어르신(96세)을 소개한다.

작열하던 태양의 기세도 한풀 꺾인 늦여름, 매미가 다른 나뭇가지로 옮겨 앉는다. 그러자 매미들이 여기저기서 찌르릉찌르릉 울어댄다. 상록수공원의 총 면적은 12,325㎡이며 1,500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 있다.

최용신은 26세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덤이 두 개이다. 오른쪽은 약혼자였던 김학준 장로의 무덤이다. '내가 죽거든 최용신 옆에 묻어다오'라는 유언에 따라 두 사람이 함께 잠들어 있는 것이다.

지하철 상록수역에서부터 최용신기념관까지 오는 '최용신 거리'에는 조각가 진은수 선생이 '최용신 이야기 속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제작한 '만남', '이쁨', '향함', '안김' 조형물이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끈다.



'만남'은 선생이 샘골 마을에 도착해 아이들을 만나는 모습을, '이쁨'은 일제 식민치하의 억압 속에서 빈곤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배롭게 보고 이들을 '희망의 세계', '빛의 세계'로 이끄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향함'은 아이들이 미래의 '조선의 빛, 조선의 싹'이 되기 위해 샘골강습소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안김'은 선생이 제자 이덕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을 표현했다. 이

덕선은 최용신의 제자 중 현재 생존해있는 인물로 선생께 직접 배운 학생이다.

매미소리가 귀뚜라미 소리로 바뀌는 계절이 되면 여름내 어두워진 귀를 깨워줄 책 한 권 들고 나무그늘의 벤치에 앉아 최용신의 이야기 속을 거니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발치에서 가을이 서성대고 있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문화유산의 향기를 머금은 팔곡당산 숲 속 길



산 정상에 산신제를 지내는 당집이 있어 팔곡당산으로도 불리는 팔곡산. 한낮의 햇살을 피해 오후 3시경 팔곡일동 담원경로당 바로 옆 진입로를 통해 팔곡산에 들어섰다. 잘 닦여진 계단을 얼마 모르지 않아 바로 깊은 산속이다. 산세가 험한 것도 아니고 고도가 높지도 않다. 그런데도 숲이 깊다. 마을입구에서 바라본 산의 외양과는 영 딴 판이다. 균락을 이룬 리기다소나무들은 쪽쪽 뻗어 하늘을 가린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상수리나무 같은 활엽수와 밤나무들이 군데군데 보인다. 벌써 밤이 익었는지 밤나무 밑은 밤송이 껍질이 쌓여있다.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이 길을 오간 사람이 추수해간 모양이다. 내려오는 주민 한 분을 붙들고 “산 자랑 좀 해주세요.” 했더니 “산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뒷동산 정도?” 하며 웃는다. 그러

면서도 마을주민들은 이 곳을 오르내리며 건강을 다진다고 일러준다. 또 이 산에는 영험한 산신령이 있어 매년 음력 10월 초순에 마을주민들이 당주를 정하고 제물을 마련해 신령님께 제를 올린다고 했다.

이 산 정상 높이는 해발 113m다. 정상까지의 높이가 300m가 넘어야 산으로 치는 기준으로 보면 팔곡산은 주민의 말마따나 산이 아니라 구릉지다. 하지만 나지막한 이 산이 예로부터 팔곡동의 우뚝골, 샛골, 담너머, 건지미, 남산뜰, 능앞, 선학골 등 7개 마을에서 공동으로 올리던 산신제의 당산인 까닭은 무엇일까. 영험하진 산신령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 두 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인가. 산신당은 전통 기와 맞배지붕 형식으로 두 칸 규모의 한 칸 집으로 두 짝 여담이 문 안 쪽에도 당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 산신령을 땡

화로 모셨다.

구전에 의하면 원래 당집은 산 아래에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말을 탄 채로 당집 앞을 지날 때면 말발굽이 떨어지지 않아 말에서 내려 걸어야만 했는데 이를 못마땅히 여긴 한 고관이 당집을 산 정상으로 옮기게 해 지금의 위치에 자리하게 됐다고 전해진다. 산 아래 있던 당집의 형태는 본래 향아리에 벗가리를 엮어 두른 형태에서 흙벽에 초가지붕을 이은 모습으로 바뀌었고 1964년(단기4297년) 지금의 모습으로 중수돼 현재는 안산시 향토유적 제22호에 지정됐다.

산신당 아래에는 옛날부터 사용하던 당물(샘물)이 있어 매년 산신제를 올릴 때면 제의용으로 쓰여 진다. 지금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됐지만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 준비 외에는 일반 식수로 쓰

지 않고 있다. 현재도 믿음이 깊은 마을 사람들은 절대 당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산신제는 1995년 자정에서 정오로 제의 시간이 바뀌면서 엄숙함이나 신묘함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해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빌어주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산 정상에서는 맑은 편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 정상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은 팔곡산 숲속 길은 팔곡동 외에도 본오2동 주택가로 바로 이어진다. 리기다소나무 숲 사이로 난 길을 지나 상록고등학교 쪽으로 걸으며 산신령께 제를 올리던 선조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안산시의 도시숲은 안산시민에게 맑은 하늘과 청정한 공기를, 심리적 치유와 보다 나은 삶을 선물합니다.”

<p>자연공존의 숲</p> <p>시민들이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생명의 숲</p>	<p>녹색가로의 숲</p> <p>맑은 하늘과 청정한 공기, 자연과 도심을 연결하는 가로녹지 숲</p>	<p>해안휴양의 숲</p> <p>섬의 다양한 생물들이 가득한 갯벌 및 해안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해안생태 숲</p>	<p>치유의 숲</p> <p>시민의 스트레스저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휴양의 숲</p>	<p>공동체의 숲</p> <p>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커뮤니티 도시숲</p>
--	---	--	--	---

국제 비즈니스 교육의 메카,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교장 전희우, 상록구 수인로 1981번지)는 4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따뜻하고 행복한 학생·현장중심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2016년에는 국제통상과, 소핑몰제작과, 비즈니스컨텐츠과, 비즈니스외국어과 등 4개 학과 총 392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입생 전원에게는 졸업 시까지 국가 특별장학금(수업료)이 지원되며, 입학 성적 우수자에게는 3년간 별도의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국제통상과(84명)

글로벌 시대의 필수 항목인 국내외 경제 흐름에 대한 제반 현상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학과로써 전산회계, 정보기술(ITQ), 컴퓨터활용능력, ERP정보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을 통해 졸업 후 증권, 은행, 자산관리, 중소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통상 및 경영, 국제비즈니스 관련 전공의 대학진학도 가능하다.

소핑몰제작과(56명)

소핑몰을 운영하는 CEO가 되기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관련 지식을 폭넓게 학습하는 학과로써 소핑몰플래너, 전자상거래관리사, 웹디자인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응용기능사, 정보기술(ITQ) 등의 자격증 취득을 통해 졸업 후 소핑몰제작회사, 전자상거래운영회사, 소핑몰운영업체, 기업체홈페이지관리회사 직종으로 진출 가능하다.

비즈니스컨텐츠과(84명)

현대산업에 필요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디자인이 제품의 트렌드를 리드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직접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학과로써 컴퓨터그래픽스응용기능사, 정보기술(ITQ), 등의 자격증 취득을 통해 졸업 후 기업체 디자인 부서, 광고회사, 등에 진출할 수 있으며, 그래픽디자인 학부, 웹디자인학과, 미술 전공의 대학진학도 가능하다.

비즈니스외국어과(168명)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국제비즈니스 감각이 살아있는 어학 인재양성을 위해 비즈니스영어, 비즈니스중국어, 비즈니스일본

어를 기초에서 실무활용까지 공부하는 학과로써 졸업 후 관광통역, 국내외 호텔 및 여행업체, 국외여행가이드, 무역회사, 교육기관, 국제통상 관련 전문직, 어학 학원 강사, 항공사, 외국인투자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어학 관련 전공의 대학진학도 가능하다.

2012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된 이후 전문 직업인 육성을 위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도입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기르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각종 어학실습실과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제과제빵테크노레이션부와 뷰티아트부를 운영하고 있다. 어학 특성화고등학교인 만큼 국제적인 감각과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해 일본 경제대학교, 상하이 화동 정법대학교, 길림성 길림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매년 방학 중 다수의 학생들이 어학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 2월 말 기준 졸업생 진로현황은 약 140여 명의 학생들이 각 분야에 골고루 진출하여 취업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 4년제(2년제 포함) 대학에 144명의 학생이 진학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맞춤형 전문직업인 육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명품학교로의 도약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 031-483-6184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작지만 큰 다문화도서관, 다·다·다 북 콘서트 열어

안산다문화·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은 2015년 여성가족부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돼 '책 3.0'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책3.0'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 적응과 한국어 교육을 위해 책을 읽고 학습하는 것을 넘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주체로 설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22일,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에서는 '책 3.0-귀 기울이는 이웃' 프로그램으로 '다·다·다(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로 만나는 다문화) 북콘서트'가 열렸다.

북콘서트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등 다문화 가족과 어린이, 고려인들이 참여해 동요, 동화구연, 기타 연주, 미술 등을 펼쳤고, 독서동아리 '글로벌스토리' 회원들은 동극 <무지개물고기>를 공연해 관객을 동화 속 상상의 세계로



안산다문화·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 '책 3.0' 프로그램... "호응"

이끌었다. 이날 북콘서트는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크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재능을 펼치며 서로 격려하는 축제가 되었다.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은 안산시로부터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과 '모

두어린이작은도서관' 두 곳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두 도서관은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및 적응, 지역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기획·운영해왔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이주민들의

자조모임을 열어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은 유아·어린이에게 한글교실,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김윤영 관장은 "독서문화 활성화 등 기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에게 한국생활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생활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다문화 도서관의 주요업무"라며 "이주민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 지역주민과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 회복에 기여하고, 이들이 지역주민의 주체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17일에는 한양대 소극장에서 '다·다·다 북콘서트'를 열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장을 마련한다.

• 문의 :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 ☎ 031-494-3579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 031-481-2661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문화세상 고리’, 우리 문화와 세계 문화의 연결고리가 되다

틀립 축제, 송끄란 축제, 거리극 축제, 세계인의 날, 대부도 포도 축제, 페달로 자전거축제, 행복나눔센터 바자회 등 안산시의 크고 작은 축제에 빠짐없이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학교와 도서관, 경로당 등 기관에서 다문화를 소개하며 다문화 도시 안산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있다.

중국, 일본,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들이 활동하는 협동조합 ‘문화세상 고리(이하 문고리)’의 백승희 대표를 만나 이들의 열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Q) ‘문고리’는 언제, 어떻게 결성된 단체인가요?

A)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2010년부터 ‘찾아가는 다문화이해 교육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말에 계약이 종료되어 다문화 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사진들과 외국인주민센터측은 다문화 대표 도시인 안산시에서의 다문화 이해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고민한 결과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2014년 ‘문화세상 고리 협동조합’을 창립했습니다.

Q)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A) 첫째, 안산시내 유아·보육 및 교육기관과 초중고교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작년에 1,000회, 올해는 1,400여 회 예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교육사업입니다.

둘째, ‘다문화 체험부스’를 통해 지역 축제에 참여해 각 나라의 물품을 전시하고 체험활동을 합니다.

셋째, 원곡동 다문화마을 특구의 특징을 배우는 ‘원곡동 나들이’를 통해 올해에는 서울사범대학교 중등교사 100명, 양지중·초지중 학생이 참여하여 다문화 이해의 확산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어르신과의 원곡동 투어 등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원곡동 깨끗한 거리 캠페인’에 참여해 외국인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Q) ‘문고리’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A) 우리 문화와 세계 문화를 연결해 다문화가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에서 ‘문화세상 고리’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결성했어요. 또 문고리를 잡아야 다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다문화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연다’는 의미도 담겨 있었어요.

Q) 요즘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문화 교육은 왜 필요한가요?

A) TV, 공중매체를 통해 외국인이 등장하는 토크쇼와 주류 외국인의 등장으로 다양한 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산은 집중 외국인 거주지가 다문화 특화도시로 시민과 학생들의 교육을 통한 접촉이 다문화 이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고리가 추구하는 교육은 소수인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수자의 아이들이 고정관념과 편견 없이 다름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어릴 때부터 배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Q) 앞으로 ‘문고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목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문고리’는 안산시 다문화 이해 교육의 대표기관으로 성장해 사회에 공헌·기여하는 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2014년 11월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문고리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원곡동에 다문화 이해 교육 센터를 설립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다문화 이해교육의 거점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청년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이탈리아 대표 A는 다문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이탈리아에도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많았으나, 다문화 가정을 일반 가정과 비교하지 않는 지금은 정책도 없어졌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이 필요 없는 나라, 온 국민이 다름을 인정하는 그 날을 향해 ‘문화세상 고리’는 오늘도 문고리를 두드리고 있다.

· 문의: 문화세상 고리 (☎ 031-411-1150)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우리 지역의 동아리

이 시간이 난 행복해! 내 젊은 날의 축제여! 음악은 나의 연인, 기타 동아리 ‘뮤앙세’



지난 8월 25일 화요일 저녁 8시, 사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연습중인 뮤앙세(회장 정민수) 동아리 회원들을 만났다. 큰 대회를 앞둔 만큼 회원 모두 빠짐없이 대열을 갖추고 기타연주에 진지한 모습이다.

잔잔한 기타 연주와 아름다운 목소리의 하모니는 ‘이 시간 난 행복해 내 젊은 날의 축제여, 푸른 날에 내리는 비 같은 내 젊은 날의 축제여’라는 노래 가사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각자의 역량을 고려한 연주와 노래 솜씨에 저절로 박수

가 나왔다.

뮤앙세는 뮤직(music)과 피앙세(fiance)를 합친 말로 ‘음악은 나의 연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13년도에 창단되어 현재 사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연습을 한다.

뮤앙세는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남자 회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남자 회원들은 거의 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어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는, 삶을 여유롭게 즐기려는 부지런한 중년 직장인들이다. 뮤앙세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고동원 강사는 “동아리는 여자 회원들이 많은데 뮤앙세는 남자회원들도 많다. 회원들은 단합이 잘되고 무슨 일이든 일사천리로 잘 따라와 준다. 기타 기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취미로 하는 것은 물론 매주 모여 실력을 키워나가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회원 손현옥 씨(반월, 58세)는 “기타를 배우고 싶어 무작정 여기에 왔는데 너무 좋아요. 기타를 하면서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많이 좋아졌고, 이 나이에 함께 어울려 공연을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집이 멀어서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오지만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요. 기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서로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뭔가를 배우니 젊어지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어 너무 좋아요.”라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뮤앙세는 각종 행사 축하공연과 복지 시설에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뮤앙세는 산악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산행을 하며 건강과 친목을 다지고 있다.

젊은 날 누구나 한번쯤 악기 하나쯤 다뤄보고 싶은 꿈을 꾸었을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삶의 여유를 느끼고 내 자신에게 들려주고픈 젊은 날의 꿈을 찾아 도전해 보자. 그것이 무엇이든 시작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제3회 상록수문화제 개최



시민이 즐기는 화합의 장 마련

본오3동(상록수문화제추진위원회)은 오는 9월 19일(토) 본오3동 최용신 기념관과 인근 상록수공원, 샘골로, 용신로, 공영주차장(메인무대/본오동 878-7)에서 '제3회 상록수문화제'를 연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상록수 문화제는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인 최용신 선생님의 상록수 정신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행사 당일 샘골로와 용신로 일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추진한다.

유아·유치·초등생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상록수 사생대회(주제: 삶의 모델 최용신정신, 상록수정신을 그리다)와 주민들의 끼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나도 가수다 주민 노래자랑'이 식전행사로 열릴 예정이며 저녁에는 김재욱의 사회로 '끼쳐라 청소년 댄스대회'와 '최용신 선생 선발대회'를 진행하여 시민이 즐기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끼쳐라 청소년 댄스대회'는 방승댄스와 비보이 분야에 관심있는 관내 청소년(초·중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최용신 선생 선발대회에서는 나라사랑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모범이 되는 여성을 선발하여 최용신상을 수여하고 최용신기념관 홍보 대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통놀이 체험(널뛰기, 투호, 활쏘기 등), 전통음식 체험, 생활모습 재현을 통해 과거의 생활상에 대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한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과 '본오3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 프로그램 문의와 신청은 본오3동 주민센터(☎ 481-5727)에서 가능하다.



안산시의회 이모저모



안산시의회 세월호 대책 특위, 진도 팽목항 찾아 실종자 가족 면담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경, 세월호 대책 특위)와 성준모 의장이 31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과 면담을 가졌다.

세월호 대책 특위 위원들과 성준모 의장은 이날 팽목항을 찾아 팽목항에 마련

된 분향소에서 참배하고, 사고 이후 실종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을 만났다.

특위 위원들과 성준모 의장은 선체 인양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가족들은 선체 인양이 무사히 완료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추진

안산시의회가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수준 높은 정책 마련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의정자문위원회는 기획행정, 문화복지, 도시환경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조사·분석 및 대안 개발, 의회에서 지정하는 정책과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의정자문위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중에서 시흥과 용인 등 15개 의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과 울산 등 광역단위의회 15곳에도 설치돼 있다.

의회는 의정자문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 고문과의 역할

을 재정립하고 위원 선임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의 양적 분석 분석보다는 정책 내용의 질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운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성준모 의장은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심도 있는 자문이 필요하다."며 "전체회의에서 의정자문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장단 회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 구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oto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부곡동의 가을맞이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아침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부곡동의 가을맞이

• 위치 상록구 부곡동 • **한줄 정보** 안산시 동북부, 수리산 줄기의 남서쪽 사면에 위치하며, 수인산 업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는 안산시 교통의 요충지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아침

• 위치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 (이동) • **한줄 정보** 청과, 채소, 수산물 등 신선하고 저렴한 품목으로 가득한 곳이다. 넓은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독/자/투/고

화랑유원지에서 느낀 가족사랑과 안산시민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얼마전 이웃 두 가족과 함께 김밥을 싸 들고 화랑유원지에 갔다. 널찍한 습지공원에서 아이들 손을 잡고 걸으며 주말 휴식을 즐겼다. 굳이 멀리 갈 필요 없고 가까이 이런 공원이 있어서 우리 안산시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갔으니 노는 것도 중

요하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평소 엄마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었는지, 또 바라는 게 무엇인지도 궁금했다. 마침 유치원 교사를 하는 주부가 준비해 온 필기도구와 노트가 있었다. 아이들에게 종이와 볼펜을 하나씩 나눠준 후 각자 고맙게 여기는 것에 대해 적어 보라고

했다.

과일모양의 색종이에 아이들은 누가 볼세라 자신의 감사한 마음에 해당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몇 개씩 적어 옆에 있는 나뭇가지에 걸었다.

아이들이 쓰고 난 뒤 아이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스크림을 사 준다며 내려간 사이 우리 주부들은 나무에 걸린 글귀들을 하나 하나 읽어 봤다.

“공원에 놀러 와서 감사합니다.”

“어제 과자를 많이 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때 놀이터에 엄마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중에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이웃집 유치원생 아이의 이야기를 읽고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튼튼한 팔,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글귀가 보는 이의 눈길을 잡아끌었다.

“엄마가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 이 아이 아빠는 직장이 멀리 마산에 있어서 주말마다 아빠가 안산으로 올라오면서 맛벌이 주말부부를 하다 보니 아이가 엄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엄마라도 없으면 어쩌나 싶었던 것 같다.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피식 웃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지(너무나 당연해서 말할 거리도 안되지만),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과 버팀목 같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글이었다.

세상이 변하면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 판단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에게는 가족만큼 더 큰 가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상처 없이 모두 소중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설령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내 핏줄이건 아닌 경우가 된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산의 모든 가정을 위해, 가족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서툰 기도를 해본다.

“안산시의 모든 가정과, 모든 아이들이 항상 행복하게 해주세요.”

김기화(상록구 세류로)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알아두면 유용한 소식 in 안산

<꾸러기 숲속교실>

글·그림 이영호(kaljebi05@naver.com)



어린이들이 자연을 배우며 그 소중함도 느낄 수 있게 된답니다~

이렇게 있었다니, 현성이라도 당장 신청해야겠어요~



우리시에 있는 도시공원을 휴식 및 운동공간 외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6,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자연생태 프로그램과



공예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꾸러기 숲속교실

공원에서 관내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이며, 자연생태체험과 공예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 자연생태 프로그램: 공원의 계절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식물들을 관찰하고 자연에서 놀이체험을 통하여 생태적 친근감과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 공예체험 프로그램: 공원내 실내공간에서 종이, 클레이(교구 합류과 유사한 질감의 소재)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공예품을 만들어보고 EQ개발과 창의력, 상상력 향상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공원내 체험 프로그램"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나요?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운영일	운영장소	운영방법	참가비
자연생태 체험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월/화/수/목/금[단체] 토요일[개인]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구룡공원, 본오공원 중 선택	전문강사 운영	무료
공예체험	시간 (오전 10시~12시)	월/화/목/금[단체]	신길공원 (실내 체험교실)		유료 (1,000원/인)

※ 둘째주 토요일은 부모와 함께 개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어린이 7명 이상시 운영)

공예체험 참가비는 체험당일에 지불하여 주십시오.

토요일 생태체험 운영장소: 첫째주 중앙공원 / 둘째주 노적봉공원 / 셋째주 호수공원 / 넷째주 구룡공원 / 다섯째주 호수공원

▶ "공원내 체험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시신청	추가신청	승인 확인 방법
전월 20일에 마감	전화문의 (481-2415)	담당자 예약확인 후 승인처리 (25일 이후에 이메일로 공문발송)

